

도서관 가는 길

GYEONGNAM
LIBRARY
MAGAZINE



Contents

도서관 가는 길 Vol. 47



04

칼럼

류주연 작가

13

사서추천도서

추천도서

07

책과 사람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청년독서모임지원사업

16

한줄 서평

경남의 책 한줄 서평

17

도서관 탐방

부산 F1963도서관(예술전문도서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표지사진제공 뒷면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22.
VOL.47

도서관 가는 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 종합소식지「도서관 가는 길」
통권 제47호 제29권 2호

발행년월 2022년 12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팩스 055)254-4819
발간등록번호 76-6481183-00001-09 편집·인쇄 이앤피협동조합



23

특집기사

전국도서관대회의 역사_송승섭 교수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창원개최

37

글마당

42

독자참여

27

도서관 소식/행사

도서관 소식
신규개관 도서관
도서관 행사
도서관 수상내역

43

도내 공공도서관



「함께 읽어요!! 2022 경남의 책」 지역분야 선정도서 <딸의 기억> 작가 류주연

작가와 문장과 사위



「딸의 기억」 작가 류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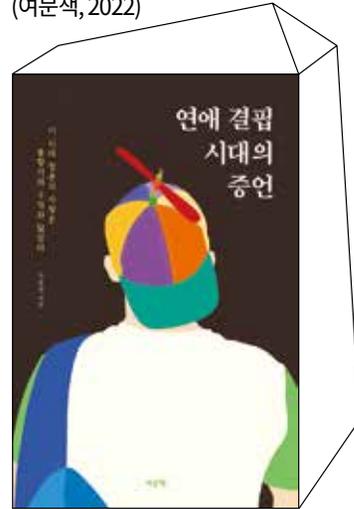
어쨌든 작가가 되었다. 지난 기억을 토해내다시피 한 글을 모아 책 한 권을 썼다. 주위의 상냥한 이들이 작가라 불러주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할 일도 생겨났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은 무섭거나 부끄러웠고 아주 가끔만 기뻐다. 책을 내고 보니 작가라는 말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한다는 것, 그러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삶이 판단되고 정의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공포로 느껴졌다. 이럴 줄 몰랐느냐고 한다면 솔직히, 몰랐다. 가까운 이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칭찬받거나 위로받는 것과 책으로 엮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이 이토록 무게가 다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함은 그쪽도 나를 모르고,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고, 나보다 더 갖은 고난을 겪고,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보기에 내 글은 가치가 있을까?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고작 이런 이야기로 책을 냈냐고 하지는 않을까? 아무나 작가할 수 있는거냐 묻지는 않을까? 작가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 이 세상의 모든 작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글을 쓴다. 그 이유와 원동력은 주로 ‘사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지를 눈앞에 뒀을 땀 갖은 애를 써도 나오지 않지만, 물에 흠뻑 젖어 어딘가에 기록할 수 없을 때만 번뜩이며 떠오르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문장을 글로 옮기고픈 충동은 가히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때부터는 씻는 등 마는 등 열불처럼 그 문장만 되뇌는 것이다.



류주연, 「딸의 기억」
(채륜서, 2021)

나호선, 「연애결핍시대의 증언」
(여문책, 2022)



그렇게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을 영감이라고 한다면 글 쓰는 일은 자의라기보단 영감에 의한 총동, 혹은 사명감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게 아무리 글 쓰는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운명처럼 찾아온 한 문장은 반드시 글로 옮겨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 무척이나 예술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누칠을 서두르는 손놀림은 꼭 예술적이진 않다. 다만 떠오른 한 문장에서 생각이 뻗어나가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내가 행하는 유일무이한 예술이라면 긍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왜 하필 샤워를 할 때 떠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다. 샤워를 할 때는 외부와 단절되어 철저히 나 혼자 남겨진다. 소음 투성이인 일상 속에서 오롯이 하루를 복기하고 경험을 되새김질한다.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하는 과정은 매크로처럼 입력되어 있기에 거의 무의식중에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곰곰이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샤워를 할 때에야 비로소 사색에 잠긴다는 결론이다. 오늘 샤워를 하면서 잊을세라 염불처럼 외웠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어쭙잖게 작가가 되었다.’

요즈음 생각에 잠기는 환경이 ‘샤워’일 뿐,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써왔고 ‘한 문장’을 만나왔다. 그때 만남의 장소는 욕실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글 쓰는 일을 좋아한다고 자각했던 것은 중학생 때였다. 내 기억에서 가장 오래된 나의 ‘한 문장’은 “소나기가 지나갈 때 억새꽃은”이다. 사실 문장이 아니라 어구에 가깝다. 저 문장이 떠올랐을 때 우리 집의 가난이 소나기처럼 느껴졌고 가너리게 흔들리지만 절대 뺄수 없는 억새꽃이 엄마처럼 느껴졌다. 해도 해도 너무하게 몰아치는 소나기에 대한 원망, 위태로워 보이는 억새꽃을 연민하는 마음을 담아 글 한 편을 완성했다. 아직도 그 글을 쓸 때의 간절한 마음이 생생하다. 그 ‘한 문장’이 떠오른 곳은 혼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지금은 폐교가 된 고성군 삼산면 삼산중



천현우, 「첫밥일지」
(문학동네, 2022)

학교의 학교도서관이었다. 생각해보면 그 학교도서관에서 참 많은 문장을 만났다. 내성적이고 사람 대하는 일이 어려웠던 내가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책 속에는 시골에서 벗어나본 적 없는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책 읽기는 유일한 여흥이자 체증이 되어갔다. 일주일에 몇 권이나 읽는지 혼자서 내기를 걸고 이기는 일에 아주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문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무라카미 하루키, 아멜리 노통이 어찌면 샤워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중에, 산책을 하는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중에 떠올려 적었을 영감들을 경험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 약하고 쉽게 우울해졌던 마음이 버티어져 갔다. 다른 이의 문장들을 접하고, 나의 문장을 만남으로써.

그래서 나는 사서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서관만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삶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그 증거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호기롭게 몸소 체험한 기적을 널리 알리겠다고 결심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도서관이 행하는 기적이 이토록 명백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체감에 답답해진 적이 많았다. 근무 기간 만 5년을 채우고도 선배 사서들이 닦아놓은 길을 겨우겨우 쫓아가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메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만나는 한 문장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만은 에어캡으로 퐁퐁 싸매 소중히 끌어안고 있다.

또래의 두 작가를 알고부터는 증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고무되고 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 중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호선 작가는 자신의 책 「연애 결핍 시대의 증언」에서 하나의 장을 통째로 할애해 독서에 대해 썼다. 그는 여러 이유로 책을 읽었다. 처음엔 엄마랑 대화하는 게 좋아서, 때론 그냥 호기심에, 호승심 넘쳤던 어느 시기엔 가난한 주제에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독서라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개인적인 경험을 시대적인 통찰로 이끌어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가 되었다. “이미 죽어버렸거나 대양이 가로막는 이역만리의 타지에 살더라도 책을 통해서라면 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다.”라며 책 읽는 행위의 기적에 대해 증언한다. 또 다른 작가는 지방 청년으로서, 공장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명해 우리 사회에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진 「첫밥일지」의 천현우 작가다. 미래가 뻔히 보이는 일상과 배려라곤 없는 현실에 방황하던 그를 넓은 세상으로 내던진 건 다름 아닌 독서였다. 그는 양산의 어느 도서관을 오가며 책을 읽기 시작한 뒤 현실에 대한 억울함이 투정이 아니라 정당한 것임을 깨닫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지금 많은 청년에게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책과 도서관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냈다.

도서관은 삶의 한 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이들의 한 줄을 양분으로 받아먹고 자신만의 한 줄을 잉태하는 곳이다. 그것들이 쌓이고 모여 삶이 변화한다. 분명 전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사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모를 사람은 애석하게도 영원히 모른다. 그런 안타까움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간 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설득을 위해 나의 소심한 두려움과 축축한 영감의 원천과 어린 시절 비밀 내기를 털어냈다. 이것이 “어쭙잖게 작가가 되었다.”라는 한 문장의 영감이 내게 내던진 사명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 도서관 도담도담 독서동아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책의 해’를 지정한 이후 매년 책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책의 해’, 2021년 ‘60+ 책의 해’, 올해는 ‘청년 독서의 해’로 청년층의 책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독서인구를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책 문화 활동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도담도담 독서동아리가 청년독서살롱사업에 선정되었다.

도담도담 독서동아리는 삼천포도서관의 우민재 주무관이 시작했다. 2021년 타지에서 홀로 삼천포에 발령을 받은 우민재 주무관이 독서모임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도담도담 독서동아리이다. 혼자 시작한 동아리라 혼자 올 때도, 둘이 진행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새 등록회원이 16명으로 늘었다.



도담도담 독서동아리만의 차별점은 ‘독서 발맞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은 19시부터 시작하지만 1시간 정도는 각자 편하게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진다. 책을 읽는 동안은 음악을 틀어 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너무 조용한 공간보다 작은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책을 읽을 때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점과 미리 책을 읽고오지 못하는 회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독서 발맞춤 시간’을 통해 책을 못읽고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부담없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도담도담 독서동아리에서는 영화감상, 야외모임 등 특별활동 등도 이루어진다.

6월에는 최근 화제인 환경문제를 다룬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를 읽고 플로깅 활동, 8월에는 「연애 결핍 시대의 증언」 나호선 작가와의 만남, 9월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읽고 독후감 쓰기, 10월에는 삼천포가 배경인 별주부전 *오토마타 만들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9월 글쓰기를 통해 회원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아리 규모가 커지다보니 어려운 점도 생겼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동아리 인원이 늘어나다보니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이 줄어들어 지루해지는 것과, 말없이 나오지 않는 회원들이라고 한다. 발언 시간에 대한 문제는 간사를 지정하여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을 하고, 불참회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우민재 주무관이 「도서관 가는 길」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

독서동아리를 통해 책을 읽는 즐거움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리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세계가 확장되는 기분을 여러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는 길」 독자님들도 잊고 있었던 책 읽는 즐거움과 대화의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해볼까...’하며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독서동아리의 문을 두드리셨으면 합니다.

*오토마타(automata): 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



Q1 이름과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강혜진 나이는 33살입니다.

Q2 가입한 지 얼마나 되었고, 가입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여름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삼천포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책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공지사항에 ‘청년 독서동아리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청년’과 ‘독서’라는 단어가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따라 삼천포에 내려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뭘 배워도 항상 나이 있으신 분들만 배서, 또래가 참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항상 해야 하는 숙제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권을 끝까지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독서동아리를 하면 1달에 1권은 끝까지 읽겠다 싶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Q3 동아리 활동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책이 재밌어졌어요. 항상 뭘가 바람직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곤 했는데,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읽지 않았을 분야의 책을 하나씩 완독하다보니 점점 독서가 재밌어지더라고요. 하나의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참 재밌었어요.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게 흥미로웠고 그런 주제로 나누는 대화 자체가 참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찾았습니다.

Q4 동아리에서 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

저는 ‘작가와와 만남’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책을 읽고 그 책을 쓴 작가와 만나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제 또래의 에세이를 그때 처음 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가님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고 있자니 깊은 대화와 함께 술자리를 세네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내적친밀감을 가지고 작가님을 실제로 뵈고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세이가 이렇게 재밌다니. 어쩌면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Q5 동아리에 바라는 점

그저 오래 지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이 재미를 다른 청년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청년독서모임지원사업



청년독서모임 지원사업은 경남의 한 청년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내 청년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로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직접 해당 제안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

청년독서모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청년독서모임 참여 희망자로서, 독서모임당 6~8인으로 구성된 모임 중에서도 청년비율이 50% 이상, 과반수가 경남 주소지인 모임을 대상으로 했다. 청년 관심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맞는 독서모임과 강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주제의 적합성과 활동의 실행성, 사업계획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8개의 청년독서모임을 선정했으며, 독서모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임당 독서모임 3회와 강연 1회로 구성하였다.



특강작가 선정

독서모임지원의 경우 강사비와 장소대관비, 홍보비 등을 모임별로 협의하여 선정하여 독서모임과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강작가 선정의 경우 독서모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한다. 글쓰기, 취향의 발견, 인문학, 난민

등 각 독서모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저명한 작가님이나, 독서모임을 통해 함께 모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던 책의 저자를 선정하여 강연을 진행했다.



창원 독서모임 '쓰밍'

창원 소재 독서모임 '쓰밍'의 경우 글쓰기라는 주제로 이슬아 작가님과의 강연을 진행했는데, 글쓰기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연 참가자 모두가 글을 써서 제출하였고, 이슬아 작가님은 글쓰기 선생님이 되어 참가자들의 글을 읽고 글의 장단점과 부족한 점,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등 피드백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작가 강연과 달리 독서모임이 원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여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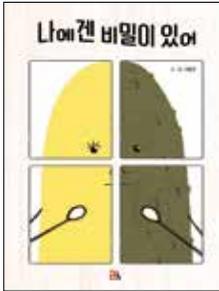
청년
독서모임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다보니 초반에는 사업 홍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청년독서관련 플랫폼이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 청년독서모임이 있는지 등을 파악했을 때 정보가 많지 않아 힘들었으며 청년으로만 독서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문 일임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독서모임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정했다. 또한 모임의 리더로서 독서모임의 책을 선정하고 전체기획을 하는 대표자들과 최대한 소통하여 각 모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지속하는 독서모임도 생겼으며, 더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준비를 하고 있는 독서모임도 있다고 한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시작된 독서모임이다보니 전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듯 도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시작한 사업이 청년독서동아리의 물꼬를 틔워냈다. 앞으로도 경남 대표도서관은 더욱 활발한 독서진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에겐 비밀이 있어

이동연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안현정

안녕, 나는 망고야!

다양한 과일 친구들 속에서 말 못할 비밀을 가진 망고는 사실 자신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싫어 망고로 분장해 친구들을 속이는 초록색 아보카도다. 아보카도는 자신의 모습이 탄로나면 친구들과 멀어질 거라는 걱정에 항상 노란색 분장으로 망고인 척 친구들과 만난다. 하지만 친구가 위험에 빠지자 아보카도는 친구를 위해 물 속에 뛰어 들고, 친구들은 그런 아보카도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준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귀여운 과일을 통해 보여주는 아기자기한 그림책이다. 또한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친구들처럼 친구의 비밀을 꼭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이철수

양산시립 영어도서관
변요셉

“여행자님, 멀리 오셨군요. 오늘 하루, 작지만 반짝였기를! 그 사소하고 가지런한 마음들, 어떤 바람에는 흔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말. 오늘은 저편으로 엮서 한 장 써 부쳐요. 내가 가만히 물어나게요.”

공공도서관협의회 국내 연수를 다녀오던 길, 우연히 들른 고즈넉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한 마디에 이끌려 접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판화가인 작가가, 평소와는 다른 화풍으로 엮서에 그려낸 살가운 그림에 일상의 느낌을 자유롭게 넋두리하듯 남겨낸 에세이집입니다.

하루하루를 한두 줄의 간단한 감상부터 뽀뽀한 한 장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마음을 가득 담아낸 엮서들은, 욕심 줄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내자는 작가의 바람을 담은 듯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스해지곤 합니다. 일상에 지쳐 있는 분이라면, 곁에 두고 언제나 펴 보길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진주시립연암도서관
김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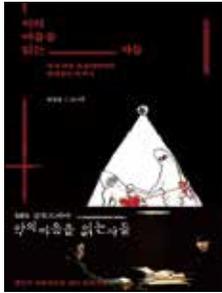
유해 물질로 뒤덮인 지구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이 책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려내던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더스트’가 세상을 덮친 후, 세상은 멸망했다. 현재 살아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다시 재건되고 있지만, 아직도 더스트라는 재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멸종 시대에 일어났던 일의 진실들을 밝혀나간다.

「지구 끝의 온실」이 SF 물이나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다루는 여느 작품들과 다르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건 식물이 가진 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작품 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화자는 인간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식물이다. 인류 멸망과 그 재건의 키워드로서 식물은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서로의 신뢰와 사랑까지도 이끌어낸다.

“식물은 뭐든 될 수 있다.”라는 작가의 말 한마디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가장 하위에 있다고 생각한 식물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아가 그 잠재력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코로나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소설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권일용, 고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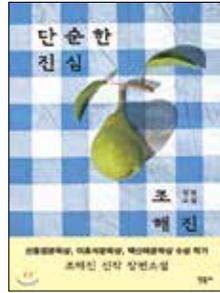
양산시립 웅상도서관
이진선

이 책은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권일용 전 경정이 '프로파일링'에 관해 집필한 도서입니다. 프로파일링은 현재 영화와 드라마 등의 소재로 활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링이 도입된 지는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무차별 범죄가 생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는 용의자를 조사하거나 지문 감식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윤외출은 이런 구시대적 수사 방법만으로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범인을 잡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무차별 범죄와 같은 연쇄살인 사건이 늘어날 것이며, 이런 범죄를 다룰 범죄심리 전문가가 경찰 내부에 필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외출은 지문 감식에 뛰어났던 젊은 권일용에게 범죄자의 특성이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이란 작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했고, 권일용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링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링 팀이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 사건 추적기와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그린 장면은 박진감 넘쳐 손에 땀을 질 정도입니다.

평소 범죄심리나 추리에 흥미가 많으신 분들은 물론, 범죄심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프로파일링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한 진심

조해진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구동은

어릴 때 해외 입양된 '문주'에게 서영이 제안을 한다. '문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입양 보내기 전까지 보호해 준 기관사를 찾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안이다. 이 책은 '문주'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 인생에 접혀 있던 페이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사고와 입양으로 어린 시절 기억이 전무한 문주는 본인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툭 떨어진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다. 문주는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신의 근원을 알아야 아이에게 떳떳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서영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연루되고 알아가고 아파하고 기뻐하며 사소하지만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을 나누는 '단순한 진심'을 느낀다. '이름'은 선택의 여지없이 부여 받았지만 평생 나를 대변하는 것으로,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첫인사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 환대받은 증거인 내 이름을 곱씹으며 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기지촌 할머니들, 문주를 보살폈던 기관사 부부의 삶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연루되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기꺼워하는 용기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림의 힘

김선현

양산시립 서창도서관
최현정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 그림을 감상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느낀다. 이 책의 장점은 짬짬이 그림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술치료사인 작가는 영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돌아 볼 생각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 인간관계, 돈, 시간, 자신 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영화를 묶어 놓아 마음이 이끄는 키워드의 책장을 열어나 에 들어오는 그림을 감상하고 작가의 글을 읽어보면 된다. 사무실 책상, 침대 옆에 두고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의 힘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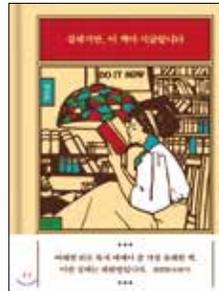
김유진

양산시립 윤희진도서관
이진주

나는 타인의 말에 쉽게 기뻐하고, 쉽게 상처받는 편이다. 요즘은 상처받는 날이 더 많아진 것도 같다. 한 살씩 나이를 먹고, 속상했던 날들이 쌓이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또한 상처받진 않을까?' 하고 자기 검열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난,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처는 잘 받고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는 서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모습에 약간의 회의감이 들 때, 이 책을 만났다.

‘좋은 대화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독자에게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살피고, 때로는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도 해보며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가 보자고 말한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나열하는 작가의 이야기에 공감되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기분이었다. 이 세상 또 어딘가에 있을 '나'를 위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내 말이 상대에게 가서 잘되고 못되는 것은 다 그 말의 운명이다. 내게는 그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힘이 없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다른 의도가 없다면, 내 말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작중.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이수은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한혜경(사서)

천 번을 살게 해주는 책 읽기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 나는 정세랑 작가님이 언젠가 TV에서 말씀하신 인생구절을 말해준다.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천 번을 산다.” (『왕좌의 게임』/ 조지 R. R. 마틴) 아마도 책이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표현일 것이다. 책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오해와 역측으로 몹시 화가 날 때, 돈벌이가 고달프고 자존감이 떨어져 사표를 쓰고 싶을 때, 책을 읽으면 그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상황에 맞춘 책은 찾기란 초보 독자에게 꽤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의 저자는 출판사 편집자로 누구보다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사람이다. 독서의 길잡이로 독자들을 적재적소에 안내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는 읽기 힘든 고전들을 소개한다.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돕는 마음으로’ 저자가 소개한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독서 에세이가 주는 미덕(대신 읽어주는 요약본)을 벗어나 내가 시급하게 필요한 책들을 찾아 나서보자. 또 다른 인생 여행, 책 속으로..



「함께 읽어요!! 2022 경남의 책」 일반분야 선정도서(호수의 일, 이현)

호수의 일



- ☞ 호수의 수면이 햇빛에 반짝이기 위해서는 얼음이 녹는 아픔을 겪어야 하듯 성장에 아픔은 필수불가결하다.
- ☞ 다른 사람의 눈길만으로 아파지는 것들이 있다. 돌이킬 수 없으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사라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 ☞ 한 편의 청춘영화를 본 것 같다. 방황하는 청춘들, 실패러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 첫사랑의 달콤한 기억, 그리고 불안과 치유, 그 무엇하나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만큼 감렬한 책이다.



「함께 읽어요!! 2022 경남의 책」 어린이분야 선정도서(몬스터차일드, 이재문)

몬스터차일드



- ☞ 오늘 나의 단점을 생각해보며 앞으로 편견 없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야."
- ☞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소중하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됐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서야 결실이 되는 것. 나를 더 사랑해야겠다.
- ☞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시선보다 본인을 더 믿고 나아가길..



「함께 읽어요!! 2022 경남의 책」 지역분야 선정도서(딸의 기억, 류주연)

딸의 기억



- ☞ 사실 이 고백은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를 살리고 엄마를 살리고 혹시라도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을 당신을 살리고 가능하다면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 ☞ 모든 청춘이 다 빛나는 건 아니더라. 억지로 묻어둔 감정,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
- ☞ 힘들었던 기억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은 상처에 새살이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재생건축을 통한 도심 속 문화공장 부산 F1963도서관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는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공장들은 반백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옮겨지거나 사라졌다. 1963년 부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고려제강 와이어공장도 어느새 문을 닫고 폐건물만이 망미동을 지키고 있었다.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만들어내던 공장은 2016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작했다. 비엔날레 전시장으로의 성공적인 변신에 힘입어 2017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와이어 공장에서 문화공장으로 변신했다.

”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

F1963라는 명칭의 ‘F’는 Factory(공장), 1963은 고려제강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처음으로 공장을 만든 1963년을 의미한다.

F1963은 기존 건물의 형태와 골조를 유지한 채 공간의 용도와 특성에 맞추어낸 재생건축으로 옛것을 활용하되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다.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 서점, 식당, 정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간을 만나볼 수 있으며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책을 매개로 예술을 만나는 공간인 예술전문도서관 F1963도서관, 공장의 옛 골조를 간직한 전시공연장 석천홀, 지휘자 금난새의 철학을 구현해 탄생한 음악공간 GMC(금난새 뮤직 센터),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전시공간인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예술을 만끽하고, 대나무숲, 단풍가든, 달빛가든 등 도심 속에서 자연도 만나볼 수 있다.

책을 매개로 예술을 만나는 공간 F1963도서관

F1963도서관은 미술, 건축, 사진, 음악분야를 다루는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지역적 한계를 넘어 문화예술분야의 지식,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대를 초월한 예술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F1963도서관에는 예술분야도서,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기존 도서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도록, 악보, 음반, 공연영상물 등도 소장하고 있다. 자료선정은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내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분류의 경우 예술도서관 특성에 맞춰 생성한 자체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며 현재 연회원은 200명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연간 이용자수는 3000여명이다.

F1963도서관에서는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 건축, 사진, 음악분야와 관련된 아카데미, 특강, 공연 등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지식을 쌓는데 기여하고 있다.

F1963도서관은 도서관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해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니 F1963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통해 예술의 세계를 만나보기 바란다.



F1963 도서관 이용안내

▶ 운영시간

3/1 ~ 11/30	12/1 ~ 2/29
화-금 11:00 ~ 19:00	화-금 11:00 ~ 18:00
토-일 11:00 ~ 20:00	토-일 11:00 ~ 19: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당일, 추석 당일, 크리스마스	

▶ 이용료

회원구분	회원자격	유효기간	회비
일반회원	연회비 10만원 납부	1년	10만원/년
학생회원	만 16세 이상 연회비 5만원 납부	1년	5만원/년

일일이용 : 비회원의 경우 일일이용료는 5천원이며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
(만 16세 이상, 재입장 불가, 이용시 신분증 필요)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드림리더



최근 핵가족화로 그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와 놀이문화, 소통의 장이 절실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시설은 시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아이가 부모와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만덕도서관



만덕도서관



부산시청열린도서관



부산시청열린도서관



부산시청열린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기존의 도서관이나 문화 시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공간으로, 대형(1,000㎡이상), 중형(330㎡이상), 소형(150㎡이상) 등 규모에 따라 체험관, 전시관, 도서관, 학습관, 커뮤니티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관, 전시관은 실감형 콘텐츠, 미디어아트 등 미래지향적 디지털 세상을 체험하고, 도서관, 학습관, 커뮤니티존은 두뇌와 정서를 발달시키고 부모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들락날락에서는 독서, 문화, 체험, 공연, 디지털 학습 등 어린이 프로그램과 가족활동, 가족상담,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들락날락이라는 이름은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2주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서 287건이 응모되었고, 그 중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특색과 의미를 살리면서, 부르기 쉽고 친근감을 주는 명칭으로 '들락날락'이 최종 선정되었다.

들락날락은 '15분 도시' 조성 관련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이다. '15분 도시'는 생활권역 내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을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 탄소배출을 낮추므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일상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부산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이다. 들락날락 역시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화와 신규 설치 등을 통해 부산시 전역 15분 거리에 촘촘하게 공간을 확충하여 2026년까지 200개소, 2030년까지 300개소를 조성하는게 들락날락의 목표이다.





사상어린이도서관



사상어린이도서관



사하구회화나무작은도서관



서구숲속놀이터



영도도서관



사하구회화나무작은도서관



서구숲속놀이터



영도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구·군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위치의 접근성 및 효율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실현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2022년 12월 현재 부산시 전역 10개소의 들락날락이 운영 중이다. 중구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작은도서관, 서구 숲속놀이터, 동구 더나눔어린이작은도서관, 영도구 영도도서관, 북구 만덕도서관, 사하구 회화나무어린이작은도서관, 연제구 아이사랑뜰, 부산시청 1층 들락날락, 수영구 망미작은도서관, 사상구 사상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콘

셉트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다.

기존에 활용이 저조한 시설 및 공간에 들락날락을 조성하여 이전대비 중구 보수동책방골목작은도서관은 20%, 영도도서관은 22%, 사하구 회화나무어린이작은도서관은 465%, 사상어린이도서관은 40% 이상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부산 시청열린도서관의 경우 9월 20일 개관 이후 12월 현재까지 총 이용자수는 6만명, VR체험이나 AR도서 등 디지털 학습 체험자 수는 6천명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계획대로 2030년 300개소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15분 생활권 내 어디에서나 들락날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전국도서관대회」의 역사



송승섭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사연구회 고문

약력

- _ 한국도서관사연구회 초대 회장(현, 고문)
- _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부회장

저서

- _ 한국도서관사 (한국도서관협회, 2019)
- _ 문명의 뇌, 서양도서관의 역사 (조은글터, 2019)

금년도 전국도서관대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3일간 열렸다. 횡수로 59회이고 연수로는 환갑이 지났으니 오랜 역사를 지닌 도서관인들의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국도서관대회의 시작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주최자인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시작은 1962년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전국의 도서관인 245명이 중앙교육연구소와 송의여자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도서관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서관법 제정을 회기하면서 개최되었다. 이렇게 전국도서관대회의 출발은 당시 한국 도서관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 기본법 제정’과 조속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진흥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집행예산이 없어 당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도움을 받아서 대회 개최가 가능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전국도서관대회가 매년 가을, 전국의 한국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의 소속 사서, 도서관계 종사자와 업계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도서관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1963년 2회 대회부터는 각 부회 도서관별로 대회 장소를 달리하여 그 부회 도서관의 당면 문제를 토의하는 형식이었다. 실제 10여 일간 각각 일정을 달리해서 특수도서관대회, 대학도서관대회, 공공도서관대회, 학교도서관대회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 그러다가 1971년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이르러 당시 문교부와 문화공보부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이후 모든 관종의 도서관인이 한 장소에 참석하여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참석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이르러서는 1,300여 명이 넘게 되었다. 단, 1974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고 협회 사무실 이전 문제로 개최되지 못했다. 2000년 이후에는 서울세계도서관정

보대회(WLIC) 개최로 대체된 2006년과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비대면) 대회로 치러진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여러 도시에서 치열한 개최 경쟁을 하며 열릴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곧 전국도서관대회는 모든 도서관인의 열망이 담겨있는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최초로 열린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35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도서관대회를 서울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당시 ‘전국’이라는 의미는 일본을 위시하여 조선, 대만, 중국 등 일본의 식민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경성도서관대회는 일제 식민지에서 열린 두 번째 대회였다. 이 해 10월 1일은 「조선 시정 25주년 기념일」이며 「조선 신궁진좌(神宮鎮坐) 10주년」이기도 하여 조선 각지에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 개최되었는데 그 일환이었다. 이 대회를 주관한 조선총독부는 도서관을 사상의 선도기관,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주입 기관으로서 의미를 부여했고, 이 대회에서 “도서관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우가키(宇垣) 총독은 도서관의 2대 사명을 ‘사상(思想)의 관측소(觀測所)’이자 ‘양서선본(良書善本)의 선택소(選擇所)’로 규정했다. 전국도서관대회가 오늘날과 같이 도서관인의 순수한 교류와 축제가 아닌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 대회의 참가자는 186명이었고, 그중 조선에서 참석한 인원은 95명이었는데 한국인도 20명이 있었다. 특히 이때 참석한 한국인 도서관인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들이 한국도서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참석자 중에는 평양에서 인정보서관을 설립·운영한 이인정 여사를 비롯하여 훗날 국립도서관장이 된 이재욱, 국립도서관 부관장과 초대 도서관협회 회장이 된 박봉석, 서울대학교 초대 관장이 된 김진섭, 농촌문고 발전을 위해 헌신한 강진국, 서울대학교 부관장이 된 김구경, 당시로서는 드물게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장을 지낸 이묘목, 일본 문부성이 발급한 ‘사서 자격증’을 한국인 최초로 따낸 최장수,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장을 지낸 성달영 등이 있었다. 모두 도서관계 실력자였고, 이들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이끈 지도적 인물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상당수는 한국전쟁 중에 행방불명되었다.

오늘날 전국도서관대회는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독서주간이나 도서관주간 행사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전국도서관대회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각 대회에서 천명한 슬로건과 같이 변화하며 세상을 리드하는 도서관으로, 사람과 책이 만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과 융합의 시대에 새 길을 여는 도서관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한때 도서관과 전국도서관대회가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사상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치욕의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2022. 10. 12.(수) ~ 10. 14.(금)

창원컨벤션센터CECO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전국도서관대회가 3년 만에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 관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학생, 업체 등 약 3,500명이 참석하여 각종 도서관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도서관계 최대 축제의 장으로 1962년 시작하여 올해 59회 째를 맞았다.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는 도서관문화전시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시상식, 프로그램, 도서관문화전시회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시상식에서는 총 47개관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었는데, 경남대표도서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는 현장진행의 이점을 살려 실습으로 진행된 ‘[튜토리얼] 도서관 실무자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비롯하여 ‘[세미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워크숍]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 공유회’, ‘[세미나] 마산 창원 지역 도서관의 역사와 의의’ 등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도서관계 이슈를 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총 4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도서관문화전시회에서는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기업 58개 회사(142개 부스)가 참여하여 신기술 및 관련 제품들을 소개했다. 도서관문화전시회에는 도서관 관련 업체와 출판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도서관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되었다.

전국도서관대회기간동안 단체도서관투어가 운영되어 경남대표도서관, 창원중앙도서관, 최윤덕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 마산도서관,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도슨트투어를 실시하는가 하면, 창원특례시에서는 창원지역관광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창원국제사격장 사격체험, 마산창동 원도심 골목여행, 진해 근대문화 역사길 탐방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창원지역관광을 지원하여 전국도서관대회를 방문한 도서관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다.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NEWS

경남도서관소식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거제

<제8회 섬앤섬길 독서대회> 완주증서 및 포상품 증정

제8회 섬앤섬길 독서대회를 마무리하고 대회를 완주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거제시민의 독서 문화 증진에 기여한다.

섬앤섬길 독서대회는 개인별 독서 목표를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 산책 코스 등을 책 페이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거제시립도서관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제8회 섬&섬길 독서대회
2022. 4. 1. - 9. 30.

참가신청기간: 2022. 4. 1. ~ 9. 30.
독서기록의 유효기간: 10월 31일
신청처: 거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lib.geoje.go.kr

순서	도서명	거리	책 수	대상
1	내방안 천덕교	5km	2,500책	1인당
2	송유동 대수산 천덕산 기암 괴굴	10km	5,000책	1인당 2명
3	양지암 천덕교	15km	7,500책	1인당 3명
4	북촌산 천덕교	20km	10,000책	1인당 4명
5	부지천교	25km	12,500책	1인당 5명

문의: 경남도서관 639-3861 / 옥포도서관 639-3881 / 송유도서관 639-3891 / 양지암도서관 639-3921 / 여주도서관 639-7320

거제시립하청도서관

<북큐레이션> 양성평등 도서 전시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성(性)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 전시한다. 전시는 11월, 12월에 걸쳐 진행되며, 11월은 '일상 속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12월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양성평등'을 주제로 도서를 전시한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거창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어디든나도서관」 운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은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 제공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인 스마트도서관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거창군스포츠파크, 승강기안전기술원, 수송대, 보건소, 웅양면, 북상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면단위 독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원면에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해

김해도서관, 1층 로비 책&침 모두의 공간으로 변신하다!

거의 활용도가 없었던 1층 로비 공간이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책&침 모두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조성된 1층 로비는 다양한 전시 공간, 휴식 공간 등 도서관 이용자들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바뀌었다.

도서관 방문 시,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이 공간에 다양한 원화 및 작품들을 전시하여 독서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공연 및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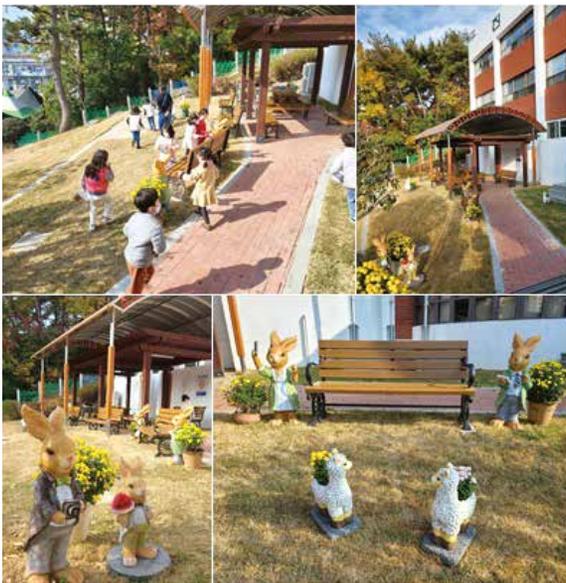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은 2022년 12월 11일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운영한다. 공연으로는 12.10.(토) <레이저쇼> 12.17.(토) <인형극: 코코의 바다여행> 12.21.(수) <수요음악회> 12.24.(토) <크리스마스이브 엔 팍퍼라> 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12.24.(토)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개관일 생일 떡증정, 생일 축하카드 작성, 김해지혜의바다 365일의 기록 사진전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한다.

<도서관 주변 화단 및 정원 재정비>

진영도서관은 도서관 주변 환경과 정원 재정비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힐링과 심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용자들이 햇볕을 쬐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재배치하고, 잔디를 심어 쾌적해진 공간에 그림책 속 캐릭터 같은 토끼, 거위, 곰 등 귀여운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새단장한 정원에서 어린이들은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주말에 도서관을 찾은 가족 단위 이용자들은 북피크닉을 즐기기도 하는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새롭게 즐기는 힐링의 장소가 될 것이다.



책 읽기! 다시 시작해요!

지역 주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올바른 독서 생활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남지도서관이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기념품(블루투스 이어폰 or 디퓨저)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남지도서관 신규 회원 가입자 선착순 200명이며 기간은 2022.7.20.~2022.12.20. 6개월 동안 운영한다.



“4년 연속 남해의 삶이 담긴 시집 출간”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은 <길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2019년부터 이어온 시쓰기 수업을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지난 10월 말 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시낭송회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길 위의 치유 시 쓰기 온기 나눔 시집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발간된 시집은 지역 주민 15인의 공동시집 『남해의 삶, 남해의 詩』이다. 10년 연속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며 4년 연속 남해에 대한 애정과 서정적인 삶의 모습이 담긴 시집 출간을 해온 남해도서관은 지난 10월의 가을밤 수강생들의 창작 시낭송과 최고령 수강생의 색소폰 연주와 함께 오랜 시쓰기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결실의 시간을 가졌다.



인생 한 컷 마산도서관 셀프 스튜디오에서!

-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무료 셀프 촬영 공간 마련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마음껏 찍고 편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창작 공간 ‘셀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셀프 스튜디오’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셀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시설을 완비하고 카메라, 조명 등 촬영 장비는 물론 ‘포토샵’, ‘일러스트’ 등 편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만 13세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회원은 누구나 공간과 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화요일~토요일 10시~17시 오전 2회, 오후 3회 1인 1시간 이용 가능하며 네이퍼 폼 및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인화 사진을 제공하며 모든 사진 파일은 개인 저장장치나 메일로 전송 가능하다.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마
산

일상으로 on 도서관,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 공간으로

키재기, 기차길러기, 미니텐드, 인스타그램 포토존 등 도서관 곳곳에 숨어있는 재미를 찾아 체험하고, 샌드아트 공연 관람 후 직접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연계하여 오감만족 체험을 하는 등 도서관 공간을 친숙하게 느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밀
양

『하남 클래식』 동아리 운영

하남도서관에서 열린 퇴근길 인문학 ‘조희장의 인문학 노트-클래식이 좋다’ 후속 모임으로 학습동아리가 결성되었다. 강연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성된 모임으로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6시에 도서관에 모여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남도서관의 인문학 강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클래식 음악감상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지역인문학센터로서 명실상부한 도서관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양
산

<동네책방과 꾸러나가는 북큐레이션>

양산도서관은 지역 동네책방의 특색과 장점이 돋보이는 도서 추천을 통해 동네책방 홍보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월 3곳의 동네책방(당신의 글자들, 안녕 고래야, 인디무브)에서 분야별 신간 도서 2권씩 총 6권 추천을 받아 지역신문, 도서관 소식지 등에 게재한다. 또한 동네책방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자 독서문화프로그램(원데이클래스, 강연) 등을 운영하여 침체된 지역서점을 살리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양산시립 상북어린이도서관

양
산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에서는 10월~11월 상북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도서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담당사서가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업은 역사, 환경 등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4차시로 진행이 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의
령

다시 만나는 내 삶의 도서관. 의령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책·문화·휴식이 공존하는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새롭게 단장후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재개관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길놀이, 테이블 커팅, 시설관람뿐만 아니라 종합자료실의 작은 무대를 활용하여 작은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책과 지역민의 삶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창
녕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샌드아트 공연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관장 우경량)은 11월 독서진흥 공연으로 「모래가 들려주는 이야기, 샌드아트 공연」을 운영한다. <샌드아트 공연>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사랑, 환경, 바다이야기 등을 모래로 들려주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11월 26일(일) 3시, 별관 아트홀에서 지역주민 2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실천과 참여 중심 생태환경 프로그램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창원

지식의 빛, 그 빛을 밝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10월 28일(금) 19:00 야외 특설무대에서 '지식의 빛, 그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책담개관식을 개최했다.

책담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09:00~21:00까지 운영하며 도서 이용은 물론 로봇과 3D 입체 영상,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관, VR 활동 등 미래형 첨단기술과 도서관 콘텐츠를 융합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운 미래형 도서관 스마트 누리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공간 혁신을 위해 신축된 책담 외에도 기존 별관 I 은 꿈담, 별관 II 는 해담으로 공간 명칭을 변경하여 창원도서관이 도민들에게 책을 읽고 자신의 꿈을 담아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지식의 빛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명곡도서관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 도서관

명곡도서관은 2023년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여, 가상 세계에 명곡도서관의 실제 공간을 구현하고, 자료 검색, 열람, 도서 전시 등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도 제공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하동

차시배지 하동의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왕에게만 진상되어 왕의 차로 불렸던 하동 녹차의 우수성과 역사성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왕의 차 그릇 만들기(초등대상), ▲명차와 함께하는 캘리그래피(성인대상) ▲왕의 차 삼행시 짓기(전체대상)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동 녹차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차문화를 즐기는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함안

초등1~3학년대상 「해본다! 책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과 삽화 작업을 통해 나만의 동화책을 출판하여 작가가 되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 소재 찾기→글쓰기→삽화 그리기→책 마무리→초대장 및 포스터 만들기→출판 전시회 등 책 읽기를 넘어 책 출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즐거움과 창작하는 기쁨을 제공 하리라 기대된다.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함양

행복한 책 읽기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함양도서관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해월재가노인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행복한 책 읽기 문화조성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옛이야기 속으로'를 개설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진행되는 다양한 독후활동이 12월까지 운영된다.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합천

함께 어울려요. 달고나친구!

(달라도 고마운 나의 지구촌 친구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그림책 위주의 도서를 선정하여 전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생활·문화 등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다문화 국가의 이해를 유도한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내국인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복합독서문화공간인 합천도서관이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경남 도내 신규 개관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 도서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 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5길 9-8
- 재개관일: 2022.7.15.(금)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진주시립 남부어린이도서관



- 도서관명: 남부어린이도서관
- 주 소: 진주시 가호로44번길 4
- 개 관 일: 8.19(금)
- 휴 관 일 - 매주 첫 번째 월요일
-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
-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 토,일: 9:00~17:00



최윤덕도서관

- 도서관명: 최윤덕도서관
-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
- 개 관 일: 2022.3.25.
- 휴 관 일: 매주 금요일, 공휴일
- 운영시간



실별	월~목	토~일	금/공휴일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8:00	휴실
디지털실			
종합자료실	09:00~22:00	09:00~18:00	
이룸(학습실)	08:00~22:00 ※1월1일, 설·추석 연휴 휴실		



경남도서관 행사

Gyeongnam Library
Events



도서관 주간 공연 및 전시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_ 보자기아트 전시 및 체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전통의美’

- 기간: 12. 6. ~ 12. 17.
- 내용: 보자기아트 작품 전시, 타르트&보자기매듭 에코백 만들기 체험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_ 수요일음악회

- 기간: 11월~3월(마지막 주 수요일 11:00)
- 내용: 슈베르트(11월), 하이든(12월) 등 매월 클래식 음악 작곡가를 선정하여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연주자의 음악감상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_ 인생은 아름다워

- 기간: 12. 13.(화)~ 12. 31.(토)
- 내용: 삶이 바빠 놓친 것들을 예순이 넘는 나이에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60대 지역 여성 8인의 그룹전시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_ 미키의 산타크리스마스

- 기간: 12. 19.(토)
- 내용: 눈사람,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등을 주제로 미술을 하며 관객과 함께하는 소통형 공연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_ 테마가 있는 힐링공연

- 기간: 11월~12월
- 내용: 비파선셋(11. 5.(토) 15:00) / Paper River 노래바다(11. 6.(일) 15:00)
동물들의 환경회의(11. 12.(토) 15:00) / 어쿠스틱 음악콘서트(12. 3.(토) 15:00)
마리오네트 인형극(12. 10.(토) 15:00) / 산타 코믹 매직 벌룬쇼(12. 17.(토) 11:00)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_ 동지맞이 어린이 인형극

- 기간: 12. 3.(토) 15:00 ~ 15:50
- 내용: 동지(12. 22.)를 맞아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인형극 공연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_ ‘신기한 빨간 모자’ 인형극 공연

- 기간: 2023. 2. 11.(토) 11:00
- 내용: 착한 어린이가 쓰면 힘이 100배나 세진다는 빨간 모자를 얻게 된 원숭이 친구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린 인형극 공연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_ 책담개관기념 특별음악회

- 기간: 12. 10.(토), 17.(토) 15:00
- 내용: '도서관 낭만 음악회'와 '도서관 나눔 음악회'를 주제로 피아노 및 플루트 공연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이방인의 마음 류혜란 작가 전시회

- 기간: 11월
- 내용: 통영 봉수골 시인이자 화가인 류혜란 작가 초대전
“누구나 자기 안에 이방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사랑받아 마땅한.”이라는 작가의 표현대로 마음이라는 내적 풍경을 시적인 방식 재현, 특히 박스라는 일상의 소재를 활용하여 그 구김과 질감의 토대 위에 대담한 색채 재능을 발휘하여 그린 점이 인상적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_ 인형극

- 기간: 12. 10.(토) 11:00
- 내용: 어린이 인형극 '크리스마스 캐럴'

경상남도교육청 마산 내서도서관

내서도서관에서 즐기는 북캉스

- 기간: 12. 1. ~ 12. 22.
- 내용: 스트링 아트 조명 액자 및 컬러&아로마 가족힐링 테라피 만들기,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목각인형극, 초성퀴즈 키트 배부, 북북북 사서쌤을 이겨라 미션, 그림책 원화 및 건강도서 전시 등

최윤덕도서관 _ 도서관으로 체크인! 책과 함께 겨울나기

- 기간: 11. 17.(목) ~ 2. 5.(수)
- 내용: 애들아, 쉬어가렴! (수능 응시자 힐링꾸러미 제공), 도서관으로 체크인!(출석체크), 미키의 산타크리스마스 매직쇼, 숲속 동화 구연, 겨울느낌 LED 가랜드 만들기, 종이공예, 문화교실 수강 생 작품 전시 등

작가와의 만남 / 강연

거제시립도서관 _ 박시백작가 북토크

- 기간: 12. 13.(화) 19:00~21:00
- 내용: 박시백작가 초청 북토크, :K-역사,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다 (박시백작가강연 및 청중과의 대화)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_ 그림으로 보는 조선시대 여행과 일상

- 기간: 12. 14.(수), 21.(수) 18:00
- 내용: '겨재 정선과 떠나는 조선 후기 금강산 여행'과 '신윤복이 그린 조선의 일상'을 주제로 강연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_ [책, 사람을 읽다] 김선영 저자강연

- 기간: 11. 15.(화) 14:00
- 내용: '시간을 파는 상점'의 저자 김선영 특강

양산시립서창도서관 _ '코튼캔디캔디뽕뽕' 하선정 작가과의 만남

- 기간: 12. 17.(토)
- 내용: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하선정 작가와 함께 그림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클레이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

양산시립운현진도서관

남동운 작가와 함께하는 오색오색캐릭터 빙고게임!

- 기간: 12. 17.(토) 14:00
- 내용: '만화가'라는 직업과 만화의 탄생 과정 탐색

양산시립중앙도서관 _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 기간: 12. 17.(토)
- 내용: 「마법의 방방」, 「코끼리 미용실」 등을 지은 최민지 그림책 작가의 「문어 목욕탕」 같이 읽기 및 그림책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고 나만의 먹물탕 그리기 독후활동 등

강좌 및 교육

거제시립하청도서관 _ 독서동아리 리더십 양성교육

- 기간: 12월
- 내용: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동아리 재능 기부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_ 메이커 특강 프로그램

- 기간: 11. 16.(수) ~ 12. 10.(토)
-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 특강'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_메이커프로그램 겨울방학 특별강좌

- 기간: 2023. 1. 10.(화) ~ 1. 20.(금)
- 내용: '동화와 함께하는 3D프린팅A' 등 2개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_2023 겨울방학 특별강좌

- 기간:2023.1.17.(화)~1.31.(화)
- 내용:업사이클링,보드게임 등 체험·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 하남도서관 _2023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 기간:2023.1.4.(수)~2.15.(토)
- 내용:유아 및 어린이들이 겨울방학기간동안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강프로그램 운영
주산-암산교실, 유아한 과학교실 등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_ 하반기 별밤도서관 운영

- 기간:8월~12월
- 내용:「우리들의 우쿨렐레」 이론 및 실기교육

_2학기 1도서관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간:9월~12월
- 내용:환경교육 「우리의 미래기후」, 경제교육 「어린이 금융 경제 교실」 등 운영



문화 프로그램

거제시립장평도서관 _플라워클래스(성인반/키즈반)

- 기간:11.25.~12.17.(매주 금, 토)
- 내용:처음 꽃을 시작하는 아이들 및 성인들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베이직 수업으로 꽃을 다루며 힐링하는 시간

거창도서관 _ <라탄공예>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 기간:12.17.(토) 14:00
- 내용:라탄공예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리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_ 세계의 별별 크리스마스

- 기간:12.3.(토) 14:00~15:30
- 내용:세계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그림책으로 알아보고 산타얼굴 케이크 만들기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_2022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 기간:9.14.(수)~12.3.(토)
- 내용:시니어들의 미술시간, 캘리그래피, 행복한 마음수다
하브루타, 두근두근 책놀이,보태니컬 책연필화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싱쿠키 만들기

- 기간:12.10.(토) 10:00~12:00
- 내용:가족과 함께 그림책 함께 읽고 크리스마스 아이싱 쿠키 만들기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_ 평생학습프로그램

- 기간:11월~3월
- 내용:캘리그래피 응용-캘리그래피 수업
패브릭 아트-패브릭 아트 수업
인생타로-타로 수업
입문! 오카리나-오카리나 수업
책놀이 지도사 3급 자격과정-책놀이 자격증 취득
클레이아트-클레이아트 수업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_2022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 기간:9.1.(목)~12.7.(수)
- 내용: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글쓰기(주간)」, 「즐거움 커피생활(주간)」, 「주역(주간)」, 「생활영 어(야간)」, 「생활속시 낭송(야간)」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진주시립도서관 _ 하반기 문화교실

- 기간:9.1.(목)~12.9.(금)
- 내용:치유 시낭송, 금융 경제교실, 캘리그래피, 펜 드로잉, 코딩&메이커 교실

_ 겨울방학 문화교실

- 기간:12.30.(금)~1.27.(금)
- 내용:과학실험,그림책이랑 놀자, 영어동화,드론교실,블록놀이 등

함안군립칠원도서관 _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

- 기간:12.10.(토), 12.17.(토) 14:00~15:30
- 내용:크리스마스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



기타 프로그램

거제시립아주도서관 _ 북큐레이션

- 기간:11.8.(화)~12.31.(토)
- 내용:이용자와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독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함

거창도서관 _ <겨울독서교실> 겨울아, 읽자!

- 기간:2023.1.10.(화)~1.12.(목) 9:30~12:00
- 내용:백희나 작가의 수상 경력과 상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림책 들을 감상하고 독후활동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_ 동화랑 놀자

- 기간:11월~3월(매주 토요일 15:00)
- 내용:테이블, 장갑, 용판 등 여러종류의 동화책을 활용한 책 읽기 및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책 놀이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_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 기간: 12. 6.(화)~1. 25.(수)
- 내용: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소원을 종이에 적어 나무에 매달면 추첨을 통해 다이어리 증정(30명)

_한달한권 독서퀴즈

- 기간: 2023. 2. 4.(토)~3. 26.(일)
- 내용: 매월 제시된 그림책을 읽고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_ 진동나눔축제

- 기간: 12월
- 내용: 12월 맺음의 달로 한 해 마무리와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 운영(가족이 함께하는 코믹벌룬쇼, 과년도 잡지 무료 나눔, 책나눔 북카페, 달력만들기 체험,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등)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_ 경제야 놀자!

- 기간: 2023. 2. 7.(화)~2. 11.(토)
- 내용: 경제, 금융, 똑똑한 소비 등 놀이로 하는 어린이 경제교육



_크리스마스 선물

- 기간: 12. 1.(목)~선착순 마감
- 내용: '사탕트리' 그림책 읽은 후 독서퀴즈에 참여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키트 증정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_ 필사적 독서

- 기간: 2023. 3월~10월
- 내용: 필사 대상 도서 중 1권 선정 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여 나만의 필사책 완성, 필사 완료 시 12월 중 도서관 내 전시 및 기념품 증정

_도서관 이용헤드림

- 기간: 2023. 3월~6월
- 내용: 도서관 이용 쿠폰에 도서대출·반납 및 독서진흥행사 참여시 마다 도장을 받아 10개의 도장을 모으면 선물 증정

경상남도 교육청 하남도서관 _ 제106회 겨울독서교실

- 기간: 2023. 1. 11.~1. 13.
- 내용: 도서관 이용교육, 독서 북아트 창작, 책 소개 영상 제작, 겨울 요리 조리 등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_ 내년엔 꼭 읽으리

- 기간: 12. 1.~31.
- 내용: 올해 읽고 싶었지만 못 읽은 책, 2023년에는 꼭 완독하고자 하는 책을 응모지에 적어 이벤트에 참여하면 10명을 추첨하여 희망도서 가운데 1권을 선물로 증정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_ 2023 겨울독서교실 운영

- 기간: 2023. 1. 18.(수)~1. 20.(금)
- 내용: 책임기와 다양한 재료로 활동하는 독서체험

마산회원도서관 도서관 _ Book뱅크

- 기간: 2023. 3월
- 내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북을 배부 후, 대출/행사 참여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단계 이상 달성 시 소정의 혜택 제공

양산시립상북어린이도서관 _ 12월 독서진흥행사

- 기간: 12. 1.(목)~12. 31.(토)
- 내용: '2023년을 드립니다!' 등 6개 행사 진행

진주시립도서관

제13회 진주평생학습축제 시립도서관 홍보·체험관 운영

- 기간: 11. 26.(토) 10:30~16:30
- 내용: 슈링클스 책갈피 만들기

_겨울독서교실

- 기간: 2023. 1. 10.(화)~1. 13.(금)
- 내용: 겨울, 도서관에서 책하고 놀자, 맛있는 동화요리, 그림책 연극놀이 등

연암도서관 _ 찾아가는 문화교실

- 기간: 9. 2.(금)~12. 9.(금)
- 내용: 책임기 및 독후활동

서부도서관 어린이 전문 도서관 _ 북스타트

- 기간: 4.~12.(소진시까지)
- 내용: 책꾸러미 배부(그림책 2권, 가방, 안내책자)

함안군립칠원도서관 _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운영

- 기간: 11. 22.(화)~1. 9.(월)
- 내용: 칠원도서관 지하 1층에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운영



도서관 수상내역



경남대표도서관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경남대표도서관은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도내 공공·작은·학교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올해의 책작가 초청 특강,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적 소통이라는 도서관의 역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책이음서비스 공모전 장려상 수상

경남대표도서관은 2022년 책이음서비스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책이음서비스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로 신용카드와 책이음회원증 연계를 통한 인지도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은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창원도서관은 도서관 경영·시설환경·도서관 서비스 3개 영역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김희상
(주말 자료실 근로자)

“보물창고 같은 도서관! 감사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집이 이사할 때마다 동네의 가까운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적지 않은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다. 도서관마다 내부 인테리어와 놓여 있는 책이 달랐던 만큼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 도서관들을 방문한 덕분에 나는, 나만의 비밀기지 같은 도서관을 애용하게 된 것 같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양도서관을 처음 방문했다. 공부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이용하던 중 필요한 책을 대출하여 읽기도 했는데 그때 사서 선생님께서 사서가 되는 건 어떨겠느냐고 조언해 주셨다. 하지만 그때는 ‘사서’라는 직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 기존에 하고 싶었던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고 했지만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던 중, 전에 사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문헌정보과로 진학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면서 도서관이 책만 다루는 곳이 아님을 알았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로 진학을 위한 학습에 관한 정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임을 배웠다.

개인 학습 공간부터 진로를 선택에 도움을 주셨던 사서 선생님의 조언, 그리고 사서 업무를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고마운 도서관이 진양도서관이었다. 도서관 실무에 서툰고 소통을 어려워하는 나를 관장님, 사서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실습부터 시작해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아주 조금씩 발전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는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마음은 엄청난 보물을 얻은 것 같았다.

도서관은 사람과 책,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라서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자신의 진로나 목표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책을 찾아내거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자신과 취미가 같은 이웃을 만날 수 있고,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실력 있는 강사를 만나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하기 위해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박유민

“어린이 아닌 어린이도 저를 성장시키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음을...”

창녕도서관은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창녕 토박이인 저는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창녕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도서관은 동생과 부모님을 기다리는 작은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는 운 좋게 도서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저의 현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저는 창녕도서관의 어린이실 사서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어린이실 사서대체로 지원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실 근무가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 어린이 이용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나 다를까 어린이실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 현장학습 견학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첫 어린이 현장 견학이니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대본도 짜고 가능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열정이 무색하게 첫 번째 어린이집 원아들을 어영부영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즐거운 견학을 기대했을 어린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선생님들께 궁금한 점과 조언, 그리고 앞선 경험을 토대로 다시 처음부터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여러 번 견학을 진행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니 신기하게도 원아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견학이 정말 재밌었다고 다음에는 엄마랑 꼭 오겠다고 고사리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던 아이가 정말 자주 도서관에 찾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뿌듯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서관이 아닌 바깥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제게 도서관 선생님이라며 인사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전엔 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건 저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어린이 아닌 어린이도 저를 성장시키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앞에서 창녕도서관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실에서 어린이 이용자들을 통해 다음에 사서가 되었을 때의 저의 미래를 어렵듯이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게 많은 깨달음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어린이들의 곁에 항상 도서관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저는 남은 기간 더욱더 열심히 어린이실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홍보 담당 사서의 하루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곽상호
(사서)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에 근무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에는 독서진흥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자료실에서 직접 이용자를 응대하였는데 올해는 도서관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홍보 담당 업무를 듣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었다. 예전부터 하던 신문이나 홈페이지보다는 SNS의 역할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신문 기사가 익숙하고, 유튜브보다는 TV 화면이 익숙한 아날로그적 사서인데 난관에 봉착한 기분이었다.

문득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어느 배우의 말이 생각난다.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할 건 아니다. 우리 사서들에게 어려운 일은 있어도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 고민과 연구 그리고 도전을 통해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갔고, 이제는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였다.

전투 준비가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광활한 SNS의 세상을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함께할 SNS 홍보 서포터즈 ‘창도캐스터’를 모집하였다. 일상에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기상캐스터처럼 창원도서관의 소식과 정보를 알려줄 든든한 지원군이다.

전국민의 메신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에 창원도서관 채널도 개설하였다. 채널 친구를 모아서 도서관의 이모저모



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책담 개관’ 등 격변하는 창원도서관의 모습을 발빠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새로운 홍보 콘텐츠로 더 빨리 더 정확하고 더 흥미롭게 창원도서관을 알리는 홍보 담당 사서가 될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무여

책과 함께 변한 삶의 모양

통영도서관 회원이 되고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구비되어 평소 보지 않던 분야의 책을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올해 100권 독서라는 목표를 세워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기 위해 찾았는데, 멋진 강자와 훌륭한 강연이 있어 제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9월에는 그리던 그림들을 모아 통영도서관 갤러리 미피랑에서 1달간 ‘그대로 봄’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책을 많이 접한 인연이었던지, ‘그대로 봄’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한 인연에서인지 재미있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창작하는 스님들이 모여 ‘창작집단 일상다감사’를 결성해 첫 번째 프로젝트로 통영에서 1인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봄’의 줄임말로 ‘그봄출판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운영은 처음이라 많은 공부が必要했는데 다행히 통영도서관에 많은 자료가 있었고, 희망도서관 서비스로 없는 책도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에 시작한 1인 출판사의 책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창업 지원 공간인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입주자로 선정되어 12월 1일 입주하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책을 보는 만큼 나의 세상이 크고 넓어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세상은 내가 정한 것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경험 중입니다.





혼자 있을 권리

마산회원도서관

김태욱
(사서)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도서관을 주제로 자유롭게 글을 써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도달한 물음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 제의를 듣기 전까지는 사서로서 도서관의 풍경에 늘 귀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식의 터전으로서의 가치라든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식들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달해줬던 계몽의 상징으로서의 가치 같은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교과서에 쓰기 적합한 역사적인 가치이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은 이용자들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행정적인 가치일 것이다.

상기의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한 개인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싶다.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 곧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지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어딘가에 속해있다.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더 나아가 동호회까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아니, 살아가야만 한다. 사회로 나가는 순간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수 천년 전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어쩌면 명제의 힘이 더 강해진 것 같은 기분이다. 사회의 템포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우리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로 이루어진 울타리를 겹겹이 세워우

리를 보호한다. 울타리 안의 동물은 보호받지만 그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에도 사회의 풍량은 우리에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혼자 있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대 도서관은 현대사회와 유리된 이질적인 장소이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무리에 속해있으라고 권하지 않으며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혼자 있을 권리를 부여한다. 오히려 혼자인 것이 권장되는 곳이다.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인간관계를 벗어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잠시나마 울타리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곳, 혼자 있을 권리를 보장하는 곳, 이것이 도서관이 현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며 곧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같이 있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서관은 이를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사회의 풍파가 커질수록 도서관이 지닌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도서관 가는 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도서관 가는길을 읽고
후기,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ara0730@korea.kr



도내 공공도서관 목록

지역	도서관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지역	도서관명	대표번호	홈페이지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http://glib.gne.go.kr/	진주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1	http://jinlib.gne.go.kr
	거제시립수양도서관	639-3891	http://lib.geoje.go.kr		마하어린이도서관	753-9922	http://www.mahacl.com
	거제시립아주도서관	639-7320			남부어린이도서관	749-5985	http://lib.jinju.go.kr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3871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거창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0		http://library.geochang.go.kr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http://lib.jinju.go.kr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http://gclib.gne.go.kr	혁신어린이도서관	749-7490		
고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http://gslib.gne.go.kr	창녕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http://njlib.gne.go.kr/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http://www.goseong.go.kr/gslib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http://cnlib.gne.go.kr
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http://ghlib.gne.go.kr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http://www.cng.go.kr/ysl.web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330-9800	http://ghjihlib.gne.go.kr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https://lib.gyeongnam.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http://jy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51	http://mslib.gne.go.kr/	
	김해지역의도서관	330-4651	http://lib.gimhae.go.kr/main.web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252-3860	http://jhlib.gne.go.kr	
	김해울하도서관	340-7161	http://lib.gimhae.go.kr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4	http://jdlib.gne.go.kr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00	http://cwlib.gne.go.kr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10		고향의봄도서관	225-7371	http://lib.changwon.go.kr	
	김해찰암도서관	330-4591		내서도서관	225-7481		
	김해화정글샘도서관	330-2991		동부도서관	225-7531		
	남해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4	http://nhlib.gne.go.kr/		마산합포도서관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http://www.namhae.go.kr/lib	마산회원도서관		225-7473
밀양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http://mllib.gne.go.kr	명곡도서관		225-7326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http://hnlib.gne.go.kr	상남도서관		225-7411
	밀양시립도서관	359-6036		http://www.myclib.or.kr	성산도서관		225-7391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http://eng.myclib.or.kr/	의창도서관	225-7331		
사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http://salib.gne.go.kr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225-7492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http://scplib.gne.go.kr	진해지역의도서관	547-0095		
	사천시어린이도서관	831-2966	http://elc.sacheon.go.kr/	최윤덕도서관	225-7391		
산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http://sanlib.gne.go.k	진해도서관	225-7511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974-1611	http://sjlib.gne.go.kr	통영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1	http://ty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04	http://yslib.gne.go.kr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http://www.tongyeonglib.or.kr
양산시립상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http://sblib.yangsan.go.kr	꿈이랑도서관		650-2500		
양산시립서창도서관	392-5880		통영시립육지도서관		650-4580		
양산시립영어도서관	392-5940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양산시립윤현진도서관	392-5870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95	http://hdlib.gne.go.kr	
양산시립웅상도서관	392-5950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http://hmlib.gne.go.kr
양산시립중앙도서관	392-5900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7		http://www.haman.go.kr/chirwonlib.web		
의령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http://urlib.gne.go.kr	함양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http://hylib.gne.go.kr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http://hclib.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